

18세기 세미나 발제문 > 2007. 2. 24(土)

Victoria, Tin-bor hui, War and State Formation in Ancient China and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5.

1. A Dynamic Theory of World Politics

1.1 Cases

필자는 서로 상이하면서도 유사한 국제경쟁을 경험한 두 체제인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 진 제국시대(BC 656- 221)와 초기 유럽 근대사회(AD 1495-1815)가 왜 상반된 결과를 낳게 되었는지를 핵심질문으로 제시하면서 이를 비교, 검토하고 있다. 즉, 유럽(early modern European society)에서는 팽창(expansion)에 따른 비용 상승(rising cost)의 문제가 자기약화(self-weakening Expedient)와 세력 균형(balance of power)의 경향으로 나타났다면 고대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는 이와 유사한 경향이 있었으나 진 제국(Qin Empire)이 자기강화개혁(self-strengthening Reform)과 팽창(expansion)에 따른 비용 상승(rising cost)의 문제를 무자비한 술책 (ruthless tactics)과 분할과 정복(divide and conquer)으로 극복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해 유사한 국제경쟁(international competition)을 거친 두 체제가 상반된 결과를 얻게 되었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

1.2 Method

1.3 Building Blocks for a Dynamic Theory of World Politics

Table I. A Dynamic Framework of Competing Logics

The Logic of Balancing	The Logic of Domination
Balance of Power or Resistance	Counterbalance Strategy(Divide-and-Rule or Divide-and-Conquer)
Rising Costs of Expansion or Administration	Ruthless Stratagems Self-Strengthening Reforms

필자는 현실주의자(realist)적 입장과 자유주의자(liberalist)적 입장 양자의 절충을 중심으로 여기에 구성주의자적 입장을 더한다. 즉, 케네스 왈츠(Kenneth Waltz)의 논리대로 인간의 생존에 대한 본능이 국제적인 무정부 상태(anarchy)에서 국가로 하여금 세력균형의 생성을 지향하는 행동을 이끌어낸다면,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의 설명처럼 대규모 영토의 정복을 통한 제국의 건설은 팽창에 따른 비용 상승과 수익 감소의 경향을 이끌어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1.4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필자의 Dynamic Theory에 따르면 국제정치에서 국제경쟁(international competition)은 domination-seeker와 targets of domination 양자간의 전략적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양자는 서로 경쟁적 전략을 사용함으로써 이를 경쟁적 작용기제에 적응시키기도 하고 제한 받기도 한다. 즉, 지배의 대상자(dominated)는 균형의 논리(Logic of Balancing)에 의해 보호받게 되며, 이는 세력균형과 팽창에 따른 비용 상승의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한편 패권을 추구하는 세력(dominated seeker)은 지배의 논리로 이에 대응하는 전력을 추구하게 되는 것이다. 다음의 표들은 이러한 관계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Table 2. Mutual Constitution of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State Formation

Through Self-Strengthening Reforms

Internal Balancing Moves (Improvement of Relative Capability)	Self-Strengthening Reforms (Mobilization of Resources by Improving Administrative Capacity)	State-Formation Processes (Centralization of Authority)
“Increase Military Strength”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rmy by National Conscription	Monopolization of the Means of Coercion
“Increase Economic Capability”	Imposition of Direct and Indirect Taxes; Promotion of Economic Productivity	Nationalization of Taxation
“Develop Clever Strategies”	Replacement of Aristocracy by Meritocracy	Bureau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Table 3. Self-Strengthening Reforms Versus Self-Weakening Expedients

Internal Balancing Moves (Improvement of Relative Capability)	Self-Strengthening Reforms (Mobilization of Resources by Improving Administrative Capacity)	Self-Weakening Expedients (Mobilization of Resources by Relying on Intermediate Resource Holders)
“Increase Military Strength”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rmy by National Conscription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rmy by Military Entrepreneurs and Mercenary Troops
“Increase Economic Capability”	Imposition of Direct and Indirect Taxes; Promotion of Economic Productivity	Tax Farming for Ordinary Taxes; Loans and Credits for Extraordinary Revenues
“Develop Clever Strategies”	Replacement of Aristocracy by Meritocracy	Sale of Public Offices to Private Capital Holders

1.5 Dynamics of State Formation

Table 4. Self-Strengthening Reforms and the simultaneous Enhancement of the Logic of Domination in Both International Competition and State Formation

Self-Strengthening Reforms	Enhancement of the Logic of Domination in International Competition	Enhancement of the Logic of Domination in State Formation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rmy by National Conscription	Standing Armies and National Armies Are More Effective Than Feudal Levies in Fighting Wars	Standing Armies Are More Effective in International Suppression; Monopolization of the Means of Coercion Renders Unarmed Resistance Ineffective
Imposition of Direct and	Higher and More Steady	More Resources Help to

Indirect Taxes; Promotion of Economic Productivity	Flows of Revenues Help to Finance Wars	Finance Internal Coercion; Wider Tax Bases Accord Rulers Relative Autonomy
Replacement of Aristocracy by Meritocracy	Bureaucratization Facilities Mobilization of Resources and Consolidation of Conquered Territories	Bureau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Facilitates Surveillance of Society and Prevention of Resistance

Table 5. Mutual Constitution of Self-Weakening Expedients and State Deformation

Internal Balancing Moves(Improvement of Relative Capability)	Self-Weakening Expedients(Mobilization of Resources by Relying on Intermediate Resource Holders)	State Deformation Process(Erosion of Central Authority by Intermediate Power Holders)
“Increase Military strength”	Establishment of a Standing Army by Military Entrepreneurs and Mercenary Troops	Monopolization of the Means of Coercion Impossible
“Increase Economic Capability”	Tax Farming for Ordinary Taxes; Loans and Credits for Extraordinary Revenues	Rationalization and Nationalization of Taxation Derailed
“Develop Clever Strategies”	Sale of Offices to Private Capital Holders	Bureaucratization of Administration Negated

1.6 Self-Strengthening Reforms Versus Self-Weakening Expedients: Other Things Are Rarely Equal in Comparative History

결론적으로 팽창의 논리는 어떻게 균형의 원리에 대응하게 되는 것인가? 필자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다. 우선 전략을 들 수 있는데, 이에는 1.거리두기, 2.중립 선언, 3.무임승차, 4.편승, 5.타협, 6.복속 을 들 수 있다. 또한 상대방 동맹을 약화시키거나 수축시키는 방식이 있다. 그러나 결국 어떠한 조직에 있어서도 지속적인 팽창은 결국 한계 비용증가와 한계 효용감소의 경향을 낳게 되며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의 동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패권 추구 자는 보다 향상된 행정 능력 보유를 통해 전쟁 동원의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하는데, 장거리 원정의 보급망 확충, 지배지역에 대한 결속, 지배지에 대한 추가적인 자원수취의 용이성 등을 피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자기 강화 적 개혁 (self-strengthening reform)은 군사적 능력뿐만 아니라 경제적 능력도 증대시키며 이는 보다 기민한 전략을 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패권 추구 자는 이를 통해 승리의 전리품을 다른 동맹국과 나눌 필요가 없게 되고 다른 국가의 편승에 덜 취약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7 “Alternative” Explanations

2.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Ancient China

2.1 Early Triumph of the Logic of Balancing(656-284 BC)

2.2 Qin's Rise from Relative Weakness to Universal Domination(356-221 BC)

1) international politics: 진나라는 자기 강화 적(self-strengthening)수단과 무자비한 술책

(ruthless tactics)을 동원해 주위 국가들을 압박하였다.

2) domestic politics: 진나라는 능력주위를 적용하여 귀족 집단을 행정에서 배제시켰다. 또한 행정구역의 hierarchy를 확립하고, 진나라의 중앙권위(central authority)가 사회조직들과 개별 가구들에게 깊숙이 침투될 수 있도록 하였다.

2.3 Overcoming the Balance of Power

진의 팽창에 따라 다른 국가들은 “합종전략”하에 진에 대항하였고 초의 위협과 마주하게 된 진은 다중의 위협을 통해 거꾸로 합종연합을 이루고 있는 국가들을 위협하여 초와 그 경쟁국들에 대한 합종으로 전환시켰다. 한편 초가 BC 284년경 무력화된 이후 진은 유일한 위협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아가 진은 분할과 정복의 전략을 근간으로 “연횡”전략을 구사하여 기존의 “합종동맹”을 파괴시키고 더 이상의 “합종동맹”이 출현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2.4 Overcoming the Rising Costs of Expansion

한편 중국 서부 변경을 근거지로 하고 있어 동진에 따른 장거리 이동을 수행해야 했던 진나라는 팽창에 따른 비용 상승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에 획득한 영토들을 보급과 군수의 전진기지로 이용하고, 이를 통해 후방과 측면을 보호함으로써 장차 팽창의 대상이 되는 곳을 포위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또한 전술한 연횡 전략에 따라 진은 팽창에 따른 비용 상승의 문제를 최소화 시켰던 것이다.

2.5 Launching the Final Wars of Unification

합종동맹은 진에게 병합될 처지에 있는 약소국들을 위기에서 구해냈으나 이들을 구원한 국가들은 국력이 허약해졌고 연횡동맹에서 많은 국가들이 진의 침략과 횡포를 수수방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한편, 진은 분할과 정복, 무자비한 술책 등의 전략을 통해 BC 307년경 군제개혁과 기병대 창설을 통해 대항세력으로 떠오른 조나라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통일의 발판을 다지게 된다.

2.6 Why Did Qin Develop Cleverer Strategies

Elster에 따르면 인간은 최악의 상황에서 혁신적 동기를 가질 확률이 가장 높다고 지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을 제외한 여타 국가들은 그러한 능력이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나 확률이 가장 적었던 것이다. 즉, 진나라는 정복지에서 토지를 점유하고 적군의 군사들을 대량살상 함으로써 이들의 국력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였는데, 상대적인 능력과 국력의 차이가 점차 벌어짐에 따라 이들의 재건이 무의미해졌던 것이다.

2.7 Conclusion

결과적으로 인격적이고 비 집중적인 전국 시대이전의 봉건적 권위와는 대조적인 비 인격적이고 hierarchy적 행정(administration)에 입각한 진나라가 증원을 차지하여 통일을 달성하게 되었던 것이다.

3. Rethinking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in Early Modern Europe

3.1 The Balance of Relative Weakness Between Self-Weakened France and the Self-Weakened Habsburg Empire(1495-1659)

프랑스와 합스부르크는 보다 많은 효용을 얻기 위해 조세 체제를 개혁하지 않고 자금 대여와 관직 매매와 자금을 마련하였는데, 이로 인해 당장에 필요한 자금은 마련하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으며 이것이 자기 약화와 balance of relative weakness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3.2 Competition Between Self-Weakened France and Self-Strengthened Britain(1661-1715)

3.3 Near Domination by Self-Strengthened Revolutionary and Napoleonic France

3.4 Init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3.5 Divergent Models of Self-Strengthening Reforms in Early Modern Europe

예를 들어 17세기 프러시아는 후발국가로 기존 열강 등이 추구한 자기 약화 적 expedients에 영향을 덜 받았고 internal balancing moves의 흐름을 행정개혁 (administrative reform)을 통해 이룩하였고,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프랑스는 직접 통치, 국가징병제도, 세금징수의 합리화 등을 국가적으로 달성하는 등 Self-strengthening reform의 모델들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3.6 Comparing the Intensity of War

3.7 Was the Ancient Chinese System More Hobbesian and Machiavellian Than the Early Modern European System?

진:

①진나라는 수백 년간 축적되어 온 강제적 수단들(coercive means)을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었다.

②진의 개혁과 전략은 혁명적이라기보다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포괄성이나 제도화 정도에서 앞서 있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진을 수 십 여 년 동안 위협적 존재로 인식하지 못했다.

③ 진은 자기만의 기회주의적인 팽창(opportunistic expansion)을 통해 최종적인 통일전쟁 (final wars of unification)역시 그들만의 국가재원을 통해 해결하였다.

④ 동맹국을 필요로 하지 않았던 진은 포로로 사로잡은 교전국의 군대를 대량으로 학살함으로써 교전국의 회복을 미연에 방지 할 수 있었다.

나폴레옹 프랑스:

①나폴레옹 프랑스는 진에 비해 훨씬 낮은 행정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폴레옹 제국은 정복지 결속에 따른 어려움과 비용 상승의 문제를 경험해야만 했다.

②프랑스는 인적 물적 자원의 동원에 있어 자국의 자원보다는 주로 동맹에 의존하였으므로 동맹국들의 영향력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③ 프랑스의 최대 라이벌이었던 영국은 건실한 공적신용체계(public credit system)을 바탕으로 프랑스의 동맹국들을 유혹하여 프랑스 중심의 세력균형체제의 작동을 방해하였다.

3.8 "Alternative"Explanations

3.9 Conclusion

결국, 유럽에서의 세력균형의 경험은 약한 강제적 작동기제와 전략+ 강한 균형 작동기제와 전략을 통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4. The Dynamics of State Formation and Transformation

4.1 The Logic of Balancing in State Formation

4.2 Self-Strengthening Reforms, State Formation, and the Coercive State in Ancient China

4.3 Self-Weakening Expedients, State Deformation, and the Constitutional State in Early Modern Europe

4.4 Initi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4.5 Diversity in State Formation and State Strength

4.6 Collapse of the Qin Dynasty and Transformation of State-Society Relations in the Han Dynasty

5. Conclusion and Implications

5.1 Rejoining the Dynamics of International Politics and State Formation

유럽의 domination-seeker는 자기 강화 적 개혁(self-strengthening reform)보다, 자기 약화 적(self-weakening expedients)를 추구했는데, 이는 제한된 국가 능력(state capability)과 높은 전쟁 비용으로 인해 전쟁이 결정적인 수단이 되지 못했고, 정복 역시 어려웠으며 주권 국가가 생존하는데 있어 별 다른 위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한편 많은 비용이 드는 용병과 불필요한 지원병 제도는 유럽과 중국이 다른 경험을 가지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이다.

5.2 Transformation of World Politics in the Post-Napoleonic Era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국제적 경쟁은 군인과 민간인들에 대한 민간학살 및 생화학전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러나 강력한 세력균형의 노력과 합쳐진 강력한 강제력으로 인해 국제경쟁에 있어서의 균형이 이루어졌고 이러한 체제 유지의 결과와 노력이 2차 세계대전 종식 이후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다.

※1. 이 글의 문제점으로는 Victoria tin-bor hui 자신이 서양화된 동양인의 입장에서 근대 유럽의 경우가 동양보다 훨씬 세력균형의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써 서양의 입장을 다소 정당화, 옹호할 수 있는 측면이 존재했다는 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 필자의 말 대로 필자의 이론들을 우리의 경우에 대입할 수는 없을까? 예컨데 삼한 시기의 전쟁과 세력의 양태나 신라, 고구려, 백제, 가야, 기타 소국, 왜, 중국국가들의 경우를 대입하여 적용시킬 수는 없을까? 혹은 고구려-백제-신라-수, 당의 경우나 후삼국 시기, 그리고 고구려의 팽창의 한계를 비용 상승(rising cost)의 문제로 바라 볼 수는 없는가 하는 것이다. 한편 다른 이민족들과 달리 중원으로의 팽창야심이 적었던 우리의 경우를 '사대주의'와 연결시켜 이를 팽창(expansion)에 따른 비용 상승(rising cost)의 문제가 self-weakening expedients를 낳았던 것으로 볼 수는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경우, 중국과 우리의 사이가 원만했던 시기는 상대적으로 self-weaken이 강했던 시기로, 중국과 우리의 관계가 충돌이 잦았던 시기는 self-strengthen이 강했던 시기로 볼 수는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3. 나폴레옹의 경우를 early modern European Society system의 공인된 norm을 파괴함으로써 유럽 사회전체의 철저한 응징을 당한 케이스로 파악할 수 있을까? 한편, 필자는 주로 국제정치의 외부요인만 보고 있지만 국내정치적 내부요인에 주목하여 사실은 프랑스 내부의 self-weaken expedients의 경향이 당시 외교담당자인 탈레랑을 통해 발현된 것으로 볼 수는 없을까? 진과 프랑스의 비교에 있어서 진이 꾸준히 팽창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충돌 등을 통해 위기관리의 노하우를 가질 수 있었고 지도층이나 패러다임의 급격한 변화가 없었던 것에 반해 프랑스의 경우는 비록 이와 유사했으나 부르봉왕조-보나파르트 왕조로의 교체와 프랑스 혁명 등을 통한 급격한 패러다임과 지도부 교체로 인해 진과 다른 결과를 낳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질문을 던지고 싶다. 영국과 조(趙)가 비교적 유사해 보이는데, 상대적 국력에서 영국>조의 구도인 가운데 영국은 지도층이 분열되지 않았던 것도 한 요인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유럽의 경우, 정복당한 유럽의 국가들 예컨데 과거 패권국가였던 스페인, 독일의 저항이 심했던 것에 비해 춘추오패중 하나인 초(楚), 제(齊)의 경우 진의 정복 이후 비교적 저항이 적었던 것도 양 자간 차이점인거 같다.